

## 수도권본부 소규모 건설현장 「안전·품질 지키미」선정 운영

수도권본부(본부장 김영하)는 4월29일(화) 소관사업 중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「안전·품질 지키미」를 선정했다.

대형 규모의 공사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취약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낮아 자칫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.

따라서 급변 선정된 소규모 건설현장의 「안전·품질 지키미」(8명)는 앞으로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, 개인보호구 착용정도, 안전시설물 관리 및 점검 등 전반적인 안전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, 또한 안전수칙 준수 풍토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또한 수도권본부는 5월21일 「안전·품질 지키미」와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 품질교육 시행과 「안전·품질 지키미」임명장 및 명찰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.

수도권본부는 철도건설 현장에서의 「무재해 원년의 해」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활동 할 계획이다.

〈수도권본부 이종철 기자〉

## 수도권본부,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시행

수도권본부(본부장 김영하)는 4월 찾아가는 하도급사 간담회에 이어, 이번에는 5월6일~7일 2일간 소사~원시 복선전철 2공구 안전교육장에서 1공구·2공구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.

이번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은 현재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중 위험요인과 외국인근로자의 사고사례 등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되도록 했으며,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4개국의 통역사들을 지원받아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.

안전교육에는 베트남(50명), 미얀마(29명), 캄보디아(16명), 태국(27명)에서 온 근로자로 122명이 참석했다.

수도권본부에는 모두 53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며 이번에 시행한 소사~원시 복선전철 1·2공구를 제외한 각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품질실에서 2013년 배부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교재를 활용하여 책임감리원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.

〈수도권본부 서문원 기자〉



##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, '철도안전 홍보 캠페인' 시행

- 철도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홍보 효과 -

영남본부(본부장 권영철)는 철도교통 안전의 달(4월)을 맞아 16일, 부산역 광장에서 철도교통 안전 및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"철도안전 홍보 캠페인"을 시행하였다.

철도안전 홍보 캠페인은 철도공사,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, 철도안전 다짐 결의를 시작으로, 홍보기념품(물티슈) 및 전단지 배부로 끝을 맺었다.

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'작은 실천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.'는 캠페인 문구와 같이 모두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으로 보인다. 또한 철도안전 홍보 노력 및 사소한 관심이 '15년 시행중인 철도사업의 무재해 및 무사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.

〈영남본부 신아영 기자〉

부산역 광장 철도안전 결의대회



부산역 광장 철도안전 홍보 캠페인 기념품 배부



## 충청본부 건설·시설처 안전체험교육 실시

- 안전체험을 통하여 공사관리관의 안전의식 고취시켜 -

충청본부(본부장 노병국)는 4월 28일 경부고속철도 등 본부 내 건설·시설사업 관련 20여명의 공사관리관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외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의뢰하여 안전체험교육 훈련을 시행하였다.

충청본부 공사관리관들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장에서 "3차원 가상현실 입체영상을 통한 현장 위험요소 체험", "안전장비 실험 및 실습" 등 눈과 몸으로의 훈련을 통하여,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.

이번 안전체험교육에 참가한 한 충청본부 직원은 "이번 교육을 통한 다양한 체험은 공사관리관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, 위험을 각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."고 소감을 전했다.

〈충청본부 윤정일 기자〉



## '영덕~삼척 철도건설 안전지원제' 개최

- 영덕~삼척구간 본격착공에 따른 적기개통 및 무재해 다짐 -

영남본부(본부장 권영철)는 영덕~삼척 철도건설사업의 적기 개통 및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지원제를 4월 22일(수) 오후 10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시행하였다.

이 날 안전결의대회에는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경상북도 도의원, 지역발전협의회회장 등 지역주민들과 현장관계자 약 70여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무재해를 기원하며 안전 결의를 다졌다.

또한, 국민과 약속 인 2018년 하반기 적기 개통으로 더 빠르고, 더 안전하고, 더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자고 다짐하였다.

이번 안전지원제는 영덕~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본격착공을 알리는 메시지이며, 영남본부 임직원과 대내외인들의 바램대로 '18년 적기 개통까지 무재해 철도건설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.

한편, 동해선 영덕~삼척구간의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8백억원을 투입하여 강릉~태백권, 경북권 관광수요 분담 및 환동해권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말 착수되었으며 총연장 122.2km의 단선비전철 철도건설사업이다.

〈영남본부 김기태 기자〉

「안전지원제 및 결의대회 사진대지」

